

한국불교 I.

1. 삼국시대

➤ 전래

고구려 (372~668)	소수림왕 2년인 372년에, 전진(315~394)의 왕 부견(357~385)이 사신과 함께 순도를 보내 불상과 불경을 전한 것이 그 시초이며 2년 후인 374년에 아도(阿道)가 들어와 성문사 혹은 초문사 와 이불란사를 세운 것이 한국 사찰의 시작이다.
백제 (384~676)	침류왕 1년(384)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바다를 건너 동진(317~420)으로부터 왔다.
신라 (263/479~661)	신라에는 백제보다 수십 년 늦게 불교가 전해졌다. 이차돈(503~527)의 순교로 인해 법흥왕 14년(527)에 비로소 불교가 공인되었다.

➤ 삼국불교의 특징

고구려	고구려의 불교는 한마디로 학술 외교불교라고 할 수 있다.
백제	백제의 불교는 계율 중심의 불교, 예술 불교, 외교 불교라고 말할 수 있다.
신라	호국불교 원광(542~640)의 세속오계: 1. 사군이충(事君以忠) :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어야 한다. 2. 사친이효(事親以孝) : 효로써 부모를 섬기어야 한다. 3. 교우이신(交友以信) :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 4. 임전무퇴(臨戰無退) : 싸움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5. 살생유택(殺生有擇) :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 고승/구법

고구려	승랑(fl. 500년 전후) → 범랑 (507~581) → 길장 (549~623: 삼론종의 시작)
백제	겸익
신라	혜초(704~787):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 일본전법

고구려	- 혜편(fl. 584): 고구려 승려로 일본에서 포교활동을 한 최초의 인물 - 고구려의 담징의 법륜사의 벽화
백제	성왕 30년(552)에는 불교를 일본에 전파했으며, 이것이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시초이다.
신라	-----

2. 남북국 시대의 신라 (661~935)

2.1. 전성기 (661~780)

(1) 원효(617~686)는 45 세때(문무왕 원년, 661) 의상과 함께 당에 가던 도중 참된 법을 체험하고 도중에 돌아와 저술과 교화에 힘쓰다가 신문왕 6년(686)에 입적하였다.

- 일심 사상
- 화쟁사상(和諍思想)
- 무애 사상(無碍思想)

(2) 의상(625~702)

의상은 문무왕 원년(661)에 당에 유학하였으며, 문무왕 11년(671)에 돌아와 부석사를 건립하여 화엄교학의 중심도량으로 삼았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그의 저술인 <화엄일승법계도> 에서 잘 나타난다.

(3) 원측(613~696)

원측(613~696)은 왕손으로서 15 세때 당에 유학하여 고승들에게 유식론을 배우고 산스크리트어 등 6 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당 태종에게서 도첩을 받고 유가론 · 유식론을 강의했다.

2.2. 침체기 (780~826)

- 선(禪)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2.3 선법전래기 (826~935)

- 중국의 달마선 이 전래, 성행하게 된 시기이다.

3. 고려(918~1392)

3.1. 고려 전기·중기 (918~1101)

-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교관검수 사상
의천은 문종의 제 4 왕자로 11 세에 출가하여, 그는 송에도 유학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천태종이 성립(1097)되었다.

그는 교(敎)만 닦고 선(禪)을 없애거나 선(敎)만 주장하고 교(敎)를 버리는 것은 완전한 불교가 못되고 교와 선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사상을 주장했다.

3.2. 고려 중기·후기 (1101~1392)

(1)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정혜쌍수.

(2)특징: 호국불교 → 대장경의 조판

고려 시대에 있어서 《대장경》의 조판은 전후 두 번에 걸쳐 있었다. 처음은 현종(재위 1009~1031) 때이고, 다음은 고종(재위 1213~1259) 때이다. 이것을 《초조장경(初雕藏經)》·《재조장경(再雕藏經)》이라 한다.

4. 조선(1392~1910)

조선의 불교는 승유배불정책으로 승려들은 깊은 산사에 묻혀 개인의 수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으며 종교의 대사회적인 기능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 500 년의 불교는 국가의 승유배불 정책에 의해 억압과 수난으로 점철된 법난(法難)의 시대였다.

➤ 조선시대의 호국불교:

1)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일어선 서산·사명을 위시한 의승군의 활약

2)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백용성·한용운의 두 고승이 참여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호국 불교 사상은 현대에 까지 계승되어 왔다.